

DIMF 뮤지컬영화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 영화관서 만난다

민우혁, 배다해, 양서윤 등 인기 뮤지컬 배우 총출동
한국창작뮤지컬 새 역사 만든 투란도트의 영화 버전

넷플릭스 영화 '카터'를 보면 배우 주원(35)이 우리가 알던 주원이 맞나 싶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미소년 얼굴을 하고 나긋하게 말하는 그 배우는 이 영화에 없다. 대신 삭발한 머리에 벌크업 된 근육질 몸매, 웃음이 없는 얼굴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한 인간 병기가 한 명 있다. 벌거벗은 채 낫을 휘둘러며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건 정말 주원이 아니라 인간 흉기 '카터 리'다. 최근 주원을 만났다. 그는 "매번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영화 '카터'는 '악녀'(2017) '내가 살인범이다'(2012) '우리 액션배우다'(2008) 등으로 액션영화라는 한 장르에 천착해온 정병길 감독의 신작이다. 정 감독은 '카터'로 액션의 끝을 보여준다. 오토바이·자동차·헬리콥터·비행기에서 싸우고, 땅에서 물에서 하늘에서 싸운다. 칼·총·몽둥이·낫 등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 극한의 액션이라는 말이 딱 적당하다. 그리고 주원은 정 감독의 그 어렵고 위험한 주문을 모두 소화하면서 이 작품을 완성했다. "대본 보자마자 하고 싶었어요. 이걸 한국에서 찍을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전 누군가는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원이 액션 연기를 하는 게 이 영화가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드라마 '각시탈'(2012)에서 이미 꽤 난도가 있는 액션 연기를 한 적이 있다. 이밖에 다른 작품들에서도 크고 작

은 액션 연기를 했다. 액션 연기를 편하게 해 낼 수 있다고 자평해왔다. 다만 '카터'는 시나리오만 봐도 이전에 했던 액션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액션 연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촬영에 들어가기 약 4개월 전부터 '카터' 액션 팀과 함께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몸을 불렀다. 주인공 카터의 몸이 조각같은 근육질 몸매이기보다는 당당한 체격의 인물이라는 생각에 근육량은 물론이고 지방량도 함께 끌어올려 약 7kg을 찘뻤다. 그는 그렇게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주원의 몸을 보면 이전에 우리가 알던 주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다. 그는 "저희 영화가 액션 끝판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주원은 벌크업 한 몸에 어울리는 목소리도 장착했다. 대사가 거의 없는 이 작품 특성상 카터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더 큰 힘을 실기 위해서였다. 이런 목소리 변조는 마치 '다크 나이트' 시리즈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했던 목소리 연기가 떠오른다. "전 카터라는 인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죠. 강한 사람이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로요. 무슨 일든 이겨내는 강한 남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거칠게 바꿔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액션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카터'는 러닝타임 134분 간 액션 장면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영화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종류의 액션이 나오고, 들도 보도 못한 액션도 있다. 또 너무 위험해 보인다 싶은 장면도 여럿 있다. 주원은 그 많은 액션 시퀀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면으로 봉고차 액션을 꼽았다. 영화 중반부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 카터는 자신을 쫓는 CIA 요원들과 나란히 달리는 봉고차 3대를 오가며 싸움을 벌인다. 그는 "너무 잘 나와서 만족스러운 장면이지만, 찍을 땐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좁은 거예요. 봉고차 표한 대에 성인 남성 두 명만 들어가도 꽉 차더라고요. 게다가 카메라 감독님도 있어야 했고요. 카메라에 부딪히고, 주먹이 천장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액션을 하나씩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제 상대역을 한 분들이 외국인인데, 이 분들이 덩치가 좀 커야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회끈한 액션 덕분인지 '카터'는 지난 5일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영화 중 비영어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그는 "배우 생활 내내 적극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작품에 임했다"며 "배우라면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좋게 봐준 것 같아"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원은 만약 정 감독이 '카터' 후속작을 만든다면 꼭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 호불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다음 작품에선 더 멋진 액션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덜하게 해보고 싶어요."



서울·도쿄·뉴욕 분홍빛으로...블랙핑크 '라이트 업 더 핑크' 캠페인

YG, 블랙핑크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 발매 기념 프로모션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가 정규 2집 '본 핑크'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 발매를 전후해 세계 주요 도시 랜드마크를 분홍빛으로 물들인다. 1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

랙핑크는 컴백을 기념해 각국을 대표하는 명소를 분홍색 조명으로 밝히는 캠페인 '라이트 업 더 핑크(Light Up The Pink)'를 펼친다. 정동은 오는 18일 오후 8시 우리나라 N서울타워에서 시작된다. 이어 일본 도쿄타워,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브리지, 로스앤젤레스(LA) 신타모니카 관람차가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빛으로 반짝일 예정이다.

또한 야경이 인상적인 중국 상하이의 백옥관광장과 태국 방콕 최대 변화가인 센트럴월드에서도 분홍빛 물결로 도시를 밝히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된다.

도시를 그룹의 상징색으로 탈바꿈하는 K팝 그룹은 '방탄소년단'(BTS) 정도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할 당시 온 도시를 보라빛으로 물들였다. YG는 "세계 최정상 그룹인 블랙핑크에게 가능한 대규모 프로모션"이라면서 "음악팬들 뿐 아닌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 기획"이라고 전했다.

YG는 '라이트 업 더 핑크' 캠페인이 진행되는 각 랜드마크 방문 인증 이벤트도 계획했다. 블랙핑크는 오는 19일 오후 1시(한국시간) '핑크 베놈' 음원을 발표한다. '본 핑크'는 내달 16일 선보인다. YG는 자사 역대 최고 제작비가 투입된 두 편의 블랙핑크 신곡 뮤직비디오도 공개한다. 10월부터는 약 150만 명 규모의 월드투어에 나선다.

이정재 감독 '헌트' 일주일만에 200만명 돌파



영화 '헌트'가 개봉 일주일만에 2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헌트'는 16일 14만6176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209만6028명을 기록 중이다. 누적 매출액은 217억원이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2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헌트' 포함 '범죄도시2'(1269만명) '탐간:매버릭'(771만명) '한산:용의 출현'(615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9번째

'주라기 월드:도미니언'(283만명) '마녀2'(280만명) '토티:러브 앤 센서'(271만명) '미니언즈 2'(215만명) 등 9편이다.

이 작품은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이다. 이정재가 각본도 썼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안기부에 잠입한 간첩 '동립'을 잡기 위해 두 요원이 나서고, 이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정재가 안기부 요원 '박평호'를, 정우성이 또 다른 요원 '김정도'를 연기했다. 이밖에 전혜진·허성태 등이 출연했다.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한산:용의 출현'(8만82223명·누적 624만명), 3위 '비상선언'(2만2277명·누적 197만명), 4위 '탐간:매버릭'(1만9655명·누적 773만명), 5위 '미니언즈 2'(9514명·누적 215만명) 순이었다.

'서울대작전' 유아인→웅성우 포스터

넷플릭스 측은 17일 영화 '서울대작전'의 주역인 유아인, 고정표, 이규형, 박주현, 웅성우의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각 인물의 개성 넘치는 매력과 시그니처와도 같은 캐릭터 아이템들을 담았다. 더불어 1988년을 상징하는 배경과 함께 흘러나는 돈은 VIP 비자금 수송 작전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먼저 상계동 슈퍼팀 뺑꾸패의 리더 '동욱' 유아인은 VIP 작전에 합류해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지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매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우삼' 역의 고정표는 작전마다 레이싱에 어울리는 믹스테이프를 직접 만드는 가 하면 '강희장(문소리 분)'이 주최하는 파티에 DJ로 위장 취업해 동태를 살피는 스파이 역할까지 해낸다.

한편 인간 내비게이터 '복남' 역을 맡은 이규형은 택시 드라이버를 알 수 있는 노란 셔츠의 의상과 택시 오보제가 눈에 띈다. 유일하게 충청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뺑꾸패의 만형이자 서울 지리를 다 꿰뚫고 있는 복남은 작전 수행에 있어 순간 순간 기지를 발휘한다. '동욱'의 여동생인 '윤희'로 분한 박주현은 서울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이킹 동호회 회장으로



변신한다. 거침없는 성격의 '윤희'는 뺑꾸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통경찰, 청소부 등으로 위장해 제지 있는 임기응변을 선보인다. 26일 공개.

뉴진스 '하이프 보이', '어텐션' 이어 美 '빌보드 글로벌'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HYBE)의 레이블이자 민희진 대표이사사가 이끄는 어도어(ADOR)가 제작한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미국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8월 20일 자)에 따르면, 뉴진스의 첫 번째 타이틀곡 '어텐션(Attention)'이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51위를 차지했다. 전주 대비 123계단이나 상승한 성적이다.

이와 함께 뉴진스의 두 번째 타이틀곡 '하이프 보이(Hype Boy)'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 64위로 진입했다.

두 곡은 빌보드 내 다른 차트 '빌보드 글로벌 200'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차트에서 '어텐션'은 82위, '하이프 보이'는 116위를

한국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1~4위 점령... "K팝 걸그룹 처음"



기록했다. 또 뉴진스의 데뷔 앨범 '뉴진스(NewJeans)'는 '히트시커스 앨범'에서 지난주보다 10계단 상승한 12위에 자리했다. '월드 앨범'에서는 14위에 올랐다.

뉴진스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도 기록을 썼다.

'어텐션'과 '하이프 보이'는 한국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차트에서 15일 연속 1, 2위를 지켰다.